

어릴 적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늘 엄마를 찾았습니다.
준비물도 엄마가 챙기고 병원도 엄마가 데려갔습니다.
아빠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은 늘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엄마가 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그 생각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제가 휴가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학교 준비물과 알람장도 늘 제가 먼저
확인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엄마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달랐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먼저 “내가 휴가 낼게.”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일찍 출근하는 날에는 아이들 아침을 챙겨 주고 학교 준비물도 자연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들이 제 안의 편견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토스트였습니다.
제가 만든 토스트를 맛있게 먹던 남편이 아이들도 아침에 토스트를 먹고 가면 좋겠다며 자기가
만들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퇴근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아빠가 만든 토스트 어땠어?”
아이들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보다 아빠 토스트가 더 맛있었어.”

솔직히 조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없어도 아이들은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제 마음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잠깐 외출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예전처럼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을 나서면서도 아이들 밥은 먹었는지, 준비물은 챙겼는지, 혹시 아프면 어떻게 하는지
걱정을 한가득 안고 나갔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믿음직하게 돌봐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휴가를 내고 병원에 데려가고, 필요한 준비물을 챙기고, 제가 없는 자리도
자연스럽게 채워 줍니다.

제가 잠시 없어도 우리 집은 잘 돌아갑니다.
그 사실은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내려놓은 것은 집안일이 아니라 ‘엄마가 꼭 해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모두 직장을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엄마의 일과 아빠의 일이 따로 없습니다.
제가 먼저 퇴근하는 날에는 제가 아이들을 챙기고, 남편이 먼저 집에 오는 날에는 남편이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날그날 시간이 되는 사람이 하고, 더 잘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다 보니 아이들도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토스트를 만드는 것도, 병원에 데려가는 것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집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저는 그 평범함이 참 좋습니다.

어릴 적 저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엄마가 해야 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배우고 있습니다.
엄마라서 해야 하는 일도, 아빠라서 해야 하는 일도 없다는 것.
가족이라서 함께하는 일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지금 우리 집의 이 평범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양성평등의 가장 따뜻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